

마쓰바 관음당

마쓰바 관음당은 아라기지마 계단식 논을 만들고 아리다가와 제지 산업의 기초를 다진 가사마쓰 사타유(1598~1673)의 후손이 세운 불교 사찰입니다.

사타유는 아리다가와 코토게 지구에 몇 년 전 파괴된 관음당 대신 자비의 보살인 관음을 모시는 절을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사회를 더 풍요롭게 만들고자 개발 프로젝트에 자신의 재산을 다 쏟아붓는 바람에 생전에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1777년, 사타유의 증손자가 그의 꿈을 이루어 관음상을 모시는 마쓰바 관음당을 세웠습니다.

이른 봄이면 하쓰마 에시키 축제가 열립니다. 하쓰마는 음력 2월 첫 번째 말날에 열리며, 현재는 일반적으로 3월에 해당합니다. 이날은 전통적으로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신토의 신인 이나리 신에게 기도를 올립니다. 현지에서는 관음에게 불운을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상서로운 날로도 여겨집니다. 하쓰마 에시키 축제는 1778년부터 마쓰바 관음당에서 열렸습니다.

축제 3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며 가가미 모찌(거울 떡)라는 커다란 2단 떡을 만듭니다. 축제 당일에는 가가미 모찌와 장식대, 사원 현수막을 들고 고토게에서부터 사원의 오르막 진입로까지 천천히 행진합니다. 관음에게 떡을 바친 후 참가자들은 이 지역 최대 규모의 떡 던지기 행사에서 행운을 바라며 작은 떡을 받으려 서로 경쟁합니다.